

수원성교회 어와나 클럽 이야기

저희 수원성교회 어와나 클럽은 처음 서둔교회에서 소개를 받아 2005년 4월 16일 어와나의 4 클럽 중 T&T club으로 단원 50명과 교사 5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1명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원성은 많은 친구들이 어와나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믿음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와나 클럽 확대를 위해 교역자님과 교사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교회학교에 어와나모임을 도입하여 활동하는 클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사 12명과 단원 60명으로 주일예배와 클럽모임을 병행하여 활기찬 교회 학교와 클럽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더 많은 행사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티단 Day, 어와나게임즈, 그리고 성경퀴즈대회, 부모님 초청예배, 여름성경학교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토요일에 모임을 가진 T&T 클럽을 주일 오후 1시 교회학교로 도입하여 모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15명과 단원 44명으로 어와나클럽을 섬기게 되었고 클럽 모임과 교회학교의 병행이 큰 성과를 가짐으로써 중등부 클럽인 JV 클럽도 주일 9시에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수원성교회의 어와나 클럽은 3개로 교사 56명과 단원은 230명으로 교회학교의 3분의1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어와클럽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어와나 모든 클럽이 교회학교 오후 1시로 도입이 되어 불티단, 오전9시, 오후1시, T&T 오후 1시 트랙이 오후 1시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원성교회 불티단은 감독관 2명의, T&T 감독관 1명, 트랙 감독관 1명으로 4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교사는 현재 62명 불티단 단원 85명 T&T 52명 Trek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어와나 클럽의 전담 교역자가 있어 모든 활동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영어와 한글을 병행하여 모임의 차별성과 특성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1달에 한번은 외국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와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어와나 모임이 되도록 교사들의 적극적인 미팅을 가지며 기도회를 가집니다. 항상 준비된 교사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어와나의 기도 제목은 커비단이 창단 되는 것이며 많은 친구들이 말씀의 사역으로 변화 되어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대한민국에서 더 크게는 세계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생활하는 단원들이 되는것입니다.





Story of Suwonsung Awana Club



Awana of the has been started April 16 2005. Which is introduced from Seodun church.

At the first time, we just opened T&T club with 50 clubbers, 5 leaders and 1 volunteer.

From that time, many student showed their changed, faithful life. They were good role model to other children who did not take part in Awana club.

So we could enlarged our Awana club to all of Sunday school system after the discussing with youth group pastor of our church. We did a lost of activities in our church as Sparkies day, Awana games, Bible Quiz, Worship with parents, summer vision camp and etc..

Were formed Sunday afternoon school at 1 pm from Saturday T&T club. And we started JV(Trek) program at 9 AM, Sunday. We were 230 clubbers and 56 leaders on 2008.

Awana clubs are the mainstay of Sunday school in Suwonsung church. One-third of Sunday schooler is Awana Clubber now.

We started new era of Awana club this year.

We changed all of Awana club time to 1 pm Sunday.

We have 2 Sparkies directors(We have 2 Sparkies group), 1 T&T director, 1 Trek director, 62 leaders, 85 Sparkies, 52 T&T members and 56 Trekers.

Our church charged full-time pastor only for Awana, who concentrate Awana program this year.

And also we adopt a bilingual system(Korean and English).

We invite foreign missionary every month and have english praise and worship with him.

To make well designed Awana program, Awana leaders have praying meeting and planing time every week.

We always try to be approved workmen for God and Awana.

We have another goal. We want to open Cubbies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we want to grow up our children who can change his(her) family, Korea and world.

Awana 영작 : 류구영 기자

